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정혜선‡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Attitude on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Hye-Sun Jeong‡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f there is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the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1 and November 30, 2012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23 nursing students in 6 universities and 244 nurses in 5 hospitals. The nursing students and nurses ha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elderly patients than the elderly. There was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elderly patients according to grade, whether to take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 the level of interest in the Aged, and whether to have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old in the past among nursing students. There was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elderly patient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volunteer service experience among nurses. In order to identify the attitudes accurately in nursing studies or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the process to classify and define the objects of attitudes in details should be administered first.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e, Aged,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hsjeong@cju.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에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으로, 심리적 대상에 대한 좋거나 싫은 정서[1]를 말한다. 태도는 개인에게 대상을 바라보는 틀(framework)을 제공하여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준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노인간호에서도 간호제공자의 태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2]이나 케어실천행위[3]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태도를 측정할 때 태도의 기본개념 중 지향성(orient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1], 지향성이란 태도는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도 측정 전에 태도를 가지게 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결과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4]과 남성노인[5]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노인보다 치매노인에 대해 일부 측정영역에서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6], 간호사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이나 치매병동 근무자가 내·외과계 병동 근무자보다[7]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상노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노인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형성 시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데[1] 간호현장에서 노인환자를 주로 만나는 간호사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노인환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이미 노인환자에 대해 건강한 노인과는 상이한 태도를 형성하였을 것이

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사[3]나 간호대학생[2]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 수준으로 밝혀졌는데, 태도를 질문할 때, 태도를 취하는 특정대상이 존재한다는 지향성이라는 특성[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인'이라고 지칭하였다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노인집단과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노인집단에 대한 태도가 혼합되어 중립적 수준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녹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파악된다면 노인간호의 주 대상자인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강도나 효율성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제공자의 노인과 노인환자 두 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 노인간호에서 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간호대학생이나[2][8][9][10] 간호사[3][11][12][13]의 태도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분한 연구가 있을 뿐[6], 간호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노인환자와 건강한 노인을 구분하여 태도를 파악한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 한편[14]이 있을 뿐이다. 노인간호에서 간호제공자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을 유도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제공자의 태도를 파악할 때 간호대학생 뿐[6]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 노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실제로 노인간호에 임하기 전이므로 이들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가 현재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차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실제 노인환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태도개선을 위해서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 특성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요구되나 대상자 특성에 따라 노인

환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한 연구는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호제공자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에게 태도를 측정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에 따라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후에는 노인의 태도관련 연구나 교육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노인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게 될 간호대학생과 현재 노인 간호제공자인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파악하고, 두 군간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가 유의한지, 그리고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노인이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4)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를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충청남·북도 및 강원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 460명과 충청북도에 소재한 250명 이상의 종합병원 5곳의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간호대학생은 426부(회수율 94.8%), 간호사는 293부(회수율 97.7%)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간호대학생은 423부(탈락율 9.16%), 간호사는 244부(탈락율 17.0%)가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부서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으므로[7], 근무지를 일반병동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표본수 계산프로그램[15]을 사용하여 post power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간호대학생 423명과 간호사 244명은 유의수준 0.05, 중간정도 효과크기 0.5에서 검정력(power)이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절차

간호대학생은 대상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보조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간호사는 간호부서의 최고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간호부를 통해 각 병동의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첫 장에는 연구목적, 설문지의 내용, 자율적으로 연구참여 및 연구참여 철회 결정이 가능하며,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외로만 활용됨을 공지하였고 간호대학생의 경우 연구참여와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또한 대상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본 연구자는 직접 자료수집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참여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사

인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여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이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Sanders 등 (1984)[4]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각 문항은 “현명한-어리석은”, “친절한-불친절한”등과 같이 상반되는 20개의 형용사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총점은 20점-140점(문항별 1-7점)이며 70점-90점(문항별 3.5점-4.5점)은 태도가 중립적 수준임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이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은 .94, 간호사는 .93이었다.

2)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Sanders 등(1984)[4]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파악하였다.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의 7점 척도로 총점은 20점-140점(문항별 1-7점)으로 70점-90점(문항별 3.5점-4.5점)은 중립적 수준을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간호대학생 .89, 간호사는 .94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 별 전체 및 문항별 태도의 차이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간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는 t-test로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를 이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으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간호대학생

여성이 91.7%이었고, 연령별로 20세 이하가 50.6%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45.7%, 학년별로 1학년 22.7%, 2학년 27.0%, 3학년 28.6%, 4학년 21.7%이었다. 대상자의 51.1%는 임상실습 경험이 없었고, 노인간호 강의를 수강한 경우는 44.9%이었으며, 50.8%가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는 7.3%,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는 49.2%, 조부모 이외에 의미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는 15.1%,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7% 이었다<Table 1>.

<Table 1>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N=423)

Variable	Category	N(%)	Elderly		Elderly Patient	
			M(SD)	t(p)orF(p) (Scheffe)	M(SD)	t(p)orF(p) (Scheffe)
Gender	female	388(91.7)	71.42(15.23)	-0.370(.712)	93.13(12.90)	-0.120(.904)
	male	35(8.3)	72.40(11.64)		93.40(11.51)	
Age(year)	≤20	214(50.6)	71.21(14.07)	-0.408(.684)	92.34(12.42)	0.330(.187)
	>21	209(49.4)	71.80(15.85)		93.98(13.12)	
Religion	not have	238(56.3)	71.69(14.40)	0.296(.768)	92.42(12.54)	-1.336(.182)
	have	185(45.7)	71.26(15.68)		94.09(13.05)	
Grade	1	96(22.7)	70.93(.13.57)b	10.269(<.001) (a>b>c)	90.03(12.90)a	3.356(.019) (a>b)
	2	114(27.0)	70.90(13.67)b		93.99(11.74)b	
	3	121(28.6)	76.83(13.62)c		95.31(12.62)b	
	4	92(21.7)	65.84(17.25)a		92.52(13.59)ab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207(48.9)	72.03(16.15)	0.704(.482)	94.25(12.95)	1.729(.085)
	no	216(51.1)	71.00(13.74)		92.10(12.56)	
Take the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yes	190(44.9)	72.34(14.921)	1.035(.301)	94.59(12.58)	2.106(.036)
	no	233(55.1)	70.82(15.00)		91.97(12.85)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experience	yes	101(23.9)	70.31(17.10)	-0.837(.404)	93.90(13.62)	0.675(.500)
	no	322(76.1)	71.88(14.23)		92.92(12.52)	
Interested in elderly	not have	45(10.6)	74.56(16.67)	2.230(.109)	98.69(12.87)a	5.618(.004) (a>b)
	so-so	163(38.5)	72.49(13.72)		93.43(12.85)b	
	have	215(50.8)	71.50(14.96)		91.78(12.44)b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resent)	yes	31(7.3)	69.52(15.47)	-0.768(.443)	88.26(12.86)	-2.225(.027)
	no	392(92.6)	71.66(14.93)		93.54(12.71)	
Quality of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resent)	negative	6(1.4)	67.83(24.03)	0.216(.807)	90.00(13.25)	0.443(.647)
	so-so	3(.7)	75.00(17.09)		94.00(14.68)	
	positive	22(5.2)	69.52(15.47)		87.00(12.45)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yes	208(49.2)	70.98(15.52)	-0.707(.480)	93.52(2.24)	0.582(.561)
	no	215(50.8)	72.01(14.41)		92.80(13.30)	
Quality of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negative	25(5.9)	76.80(18.09)	2.673(.071)	95.28(13.92)	3.25(.723)
	so-so	22(5.2)	73.68(13.68)		93.91(9.49)	
	positive	161(37.1)	69.71(15.17)		94.19(12.34)	
Presence of significant elderly	yes	64(15.1)	68.14(14.17)	-1.959(.051)	90.52(14.71)	-1.796(.073)
	no	359(84.9)	72.10(15.03)		93.62(12.37)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significant elderly	negative	0(0.0)	70.67(9.50)	0.314(.755)	96.67(7.77)	0.739(.463)
	so-so	3(.7)			90.21(14.94)	
	positive	61(14.4)			68.02(14.41)	
Volunteer service experience	yes	337(79.7)	71.83(14.83)	0.899(.369)	93.70(12.71)	1.753(.080)
	no	86(20.3)	70.21(15.46)		91.00(12.91)	
Quality of volunteer service experience related to elderly	negative	20(4.7)	75.45(14.30)	4.639(.010)	96.50(13.56)	1.573(.209)
	so-so	97(22.9)	75.11(14.05)		95.08(12.37)	
	positive	220(52.0)	70.06(14.97)		92.84(12.74)	
Total Mean			71.50(14.96)		93.15(12.78)	
Grade Point Mean			3.58(.75)		4.66(.64)	

2) 간호사

여성이 98.8%이었고, 29세 이하가 57.0%, 종교가 있는 경우는 52.5%, 미혼이 65.6%, 일반간호사가 79.9%, 임상근무 기간은 5년 이상이 53.3%, 전문학사가 69.7%이었다. 한편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가 51.2%, 학부에서 노인간호학을 수강한 경우는 80.3%,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는 8.2%,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는 50.4%이었고, 32.4%는 조부모 이외에 의미있는 노인이 있었으며,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55.7%이었다<Table 2>.

2.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

1)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점 140점 만점에 71.50점(SD 14.96)인 중립적 수준으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93.15점(SD 12.78)인 부정적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이었으며($t=-26.249$, $p<.001$),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20문항 중 '편협한-수용적인' 1문항을 제외한 19문항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이었다<Table 3>.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학년($F=10.269$, $p<.001$)과 자원봉사 경험의 질($F=4.639$, $p=.010$)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별로 4학년이 65.84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70.93점과 70.90점이었으며, 3학년 76.83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또한 자원봉사 경험의 질에 따라서 긍정적군이 70.06점, 보통인 군 75.11점, 부정적인 군 75.45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학년($F=3.356$, $p=.019$), 노인간호학 수강 유무($t=2.106$, $p=.036$),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F=5.618$, $p=.004$), 현재 노인과의 동거

유무($t=-2.225$, $p=.027$)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인간호학 강의를 수강한 경우가 94.59점으로 수강하지 않은 군의 91.97점보다 부정적이었고, 현재 동거 유무에 따라 동거 군이 88.26점으로 동거하지 않는 군의 93.54점보다 긍정적이었다. 또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로 1학년이 90.03점으로 2학년의 93.99점이나 3학년의 95.31점보다 긍정적이었고,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보통인 군 93.43점과 관심이 있는 군 91.78점이 관심이 없는 군의 98.69점보다 긍정적이었다<Table 1>.

2) 간호사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140점 만점에 72.70점(SD 18.60)인 중립적 수준으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93.16점(SD 17.99)인 부정적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t=-15.678$, $p<.001$)이었고, 20 문항 모두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이었다<Table 4>.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임상근무 기간($F=4.813$, $p=.009$),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F=3.939$, $p=.035$),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의 질($F=4.301$, $p=.016$)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총 임상경력에 따라서 3년 이하가 67.88점으로 5년 이상의 75.81점보다 긍정적이었고,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보통인 군과 관심이 있는 군이 각각 71.28점과 72.15점으로 없는 군의 82.62점보다 긍정적이었다. 한편 과거 노인과 동거 경험의 질에 따라 긍정적인 군 70.01점, 보통인 군 71.00점으로 부정적인 군의 83.58점보다 긍정적이었다.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자원봉사 경험의 질($F=3.784$, $p=.025$)에 따라 긍정적인 군에서 88.10점으로 가장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보통인 군 97.24점, 부정적인 군 98.14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mong nurses (N=244)

Variable	Category	N(%)	Elderly		Elderly Patient	
			M(SD)	t(p)orF(p)/(Scheffe)	M(SD)	t(p)orF(p)/(Scheffe)
Gender	female	241(98.8)	72.72(18.71)	0.128(.898)	93.30(18.05)	1.050(.295)
	male	3(1.2)	71.33(5.51)		82.33(5.50)	
Age(year)	≤29	139(57.0)	70.84(19.65)	1.745(.177)	93.66(19.00)	0.431(.650)
	30-39	77(31.6)	74.62(16.35)		93.34(15.46)	
	≥40	28(11.5)	76.64(18.56)		90.21(19.61)	
Religion	not have	116(47.5)	72.91(17.44)	0.170(.865)	91.80(17.46)	-1.127(.261)
	have	128(52.5)	72.51(19.66)		94.40(18.43)	
Marital status	unmarried	160(65.6)	71.95(18.36)	-0.870(.385)	99.26(17.78)	0.118(.906)
	married	84(34.4)	74.13(19.08)		92.98(18.48)	
Position	staff	195(79.9)	71.93(18.39)	1.476(.231)	92.41(17.93)	0.873(.419)
	charge	25(10.2)	72.80(19.36)		95.64(19.58)	
	head	24(9.8)	78.83(18.60)		96.71(16.77)	
Duration for total clinical experience(year)	≤3	85(34.8)	67.88(18.27)a	4.813(.009) (a>b)	92.39(20.04)	0.441(.644)
	3-5	29(11.9)	72.90(19.30)ab		96.00(15.07)	
	≥5	130(53.3)	75.81(18.12)b		93.04(17.22)	
Educational level	college	170(69.7)	73.28(18.87)	0.730(.483)	93.05(17.50)	0.626(.535)
	university	61(25.0)	70.41(18.63)		94.49(19.23)	
	≥master	13(5.3)	75.85(14.69)		88.38(18.82)	
Interested in elderly	not have	21(8.6)	82.62(16.84)b	3.939(.035) (a>b)	101.81(15.41)	2.693(.070)
	so-so	98(40.2)	71.28(18.00)a		92.29(18.60)	
	have	125(51.2)	72.15(18.98)a		92.40(17.63)	
Took the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in college	yes	196(80.3)	72.16(17.87)	-0.912(.363)	94.00(17.69)	1.471(.143)
	no	48(19.7)	74.90(21.41)		89.75(18.94)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resent)	yes	20(8.2)	71.85(18.09)	-0.213(.831)	92.90(16.78)	-0.068(.946)
	no	224(91.8)	72.78(18.68)		93.19(18.13)	
Quality of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resent)	negative	5(2.0)	79.80(18.27)	0.626(.547)	89.80(13.65)	1.120(.349)
	so-so	2(.8)	74.50(4.95)		109.50(2.12)	
	positive	13(5.3)	69.38(18.44)		91.38(18.31)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yes	123(50.4)	71.88(18.95)	-0.696(.487)	94.39(18.15)	1.074(.284)
	no	121(49.6)	73.54(18.28)		91.92(17.81)	
Quality of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negative	19(7.8)	83.58(18.83)b	4.301(.016) (a>b)	97.53(18.80)ab	3.003(.053) (a>b)
	so-so	10(4.1)	71.00(13.16)a		106.10(10.18)b	
	positive	94(50.4)	70.01(18.80)a		92.45(18.23)a	
Presence of significant elderly	yes	79(32.4)	71.09(19.05)	-.937(.350)	89.96(19.26)	-1.935(.054)
	no	165(67.6)	73.47(18.39)		94.70(17.19)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significant elderly	negative	6(2.5)	83.00(22.75)	1.701(.189)	93.17(20.87)	0.627(.514)
	so-so	14(5.7)	74.21(19.45)		94.71(15.57)	
	positive	59(24.2)	69.14(18.38)		88.51(19.96)	
Volunteer service experience	yes	136(55.7)	70.85(19.56)	-1.756(.080)	92.23(19.83)	-0.912(.363)
	no	108(44.3)	75.04(17.13)		94.34(15.36)	
Quality of volunteer service \experience related to elderly	negative	7(2.9)	73.57(23.50)	3.027(.052)	98.14(16.69)	3.784(.025)
	so-so	51(20.9)	75.65(20.39)		97.24(17.49)	
	positive	78(32.0)	67.31(17.76)		88.10(20.76)	
Total Mean			72.70(18.60)		93.16(17.99)	
Grade Point Mean			3.64(.93)		4.66(.90)	

3.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 비교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의 정도는 두 군간에 유의하지 않았다($t=.767, p=.443$)<Table 5>.

문항별로 간호사는 '행복한-슬픈'($t=3.457, p=.001$)과 '활동적인-비활동적인'($t=3.217, p=.001$),

'생산적인-비생산적인'($t=3.615, p<.001$), '아픈-건강한'($t=3.835, p<.001$), '의존적인-독립적인'($t=3.348, p=.001$)에서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가 간호대학생보다 컸으며,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보다 '지루한-흥미있는'($t=-2.039, p=.042$), '융통성이 있는-융통성이 없는'($t=-2.688, p=.007$), '진보적인-보수적인'($t=-3.239, p=.001$) 그리고 '편협한-수용적인'($t=-5.032, p<.001$)에서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해 더 큰 태도차이를 보였다<Table 5>.

<Table 3> Comparison between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 among nursing students (N=423)

No.	Item	Attitude Score M(SD)		t(p)
		Elderly	Elderly Patient	
1	Wise-Foolish	2.84(1.05)	4.06(1.02)	-19.218(<.001)
2	Kind-Unkind	3.13(1.18)	3.98(1.28)	-11.399(<.001)
3	Ignorant-Knowledgeable*	3.41(1.11)	4.03(.97)	-9.848(<.001)
4	Happy-Sad	3.90(1.39)	5.32(1.12)	-19.968(<.001)
5	Trustworthy-Untrustworthy	3.03(1.16)	3.94(1.06)	-13.391(<.001)
6	Selfish-Generous*	3.26(1.37)	4.10(1.24)	-10.859(<.001)
7	Inactive-Active*	3.71(1.67)	5.57(1.21)	-19.664(<.001)
8	Neat-Untidy	3.33(1.32)	4.80(1.12)	-19.558(<.001)
9	Friendly-Unfriendly	2.76(1.13)	3.77(1.32)	-13.302(<.001)
10	Boring-Interesting*	3.91(1.21)	4.51(1.12)	-8.470(<.001)
11	Productive-Unproductive	4.03(1.41)	5.46(1.11)	-19.181(<.001)
12	Sick-Healthy*	3.75(1.69)	5.87(1.14)	-22.284(<.001)
13	Good-Bad	2.82(1.10)	3.98(1.15)	-16.886(<.001)
14	Flexible-Inflexible	3.82(1.41)	4.46(1.08)	-8.754(<.001)
15	Dependent-Independent*	3.82(1.41)	5.59(1.13)	-20.872(<.001)
16	Liberal-Conservative	4.81(1.37)	5.02(1.13)	-3.281(.001)
17	Attractive-Unattractive	3.88(1.09)	4.61(1.07)	-11.605(<.001)
18	Intolerant-Tolerant*	3.81(1.23)	3.92(1.37)	-1.369(.172)
19	Optimistic-Pessimistic	3.65(1.26)	5.03(1.12)	-18.039(<.001)
20	Uncomplaining-Complaining	4.06(1.32)	5.13(1.19)	-14.129(<.001)
Total Mean		71.50(14.96)	93.15(12.78)	
Grade Point Average		3.58(.75)	4.66(.64)	-26.249(<.001)

* reverse coding

<Table 4> Comparison between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 among nurses (N=244)

No.	Item	Attitude Score M(SD)		t(p)
		Elderly	Elderly Patient	
1	Wise-Foolish	3.07(1.22)	4.35(1.24)	-14.004(<.001)
2	Kind-Unkind	3.32(1.28)	4.25(1.27)	-10.451(<.001)
3	Ignorant-Knowledgeable*	3.65(1.20)	4.23(1.16)	-6.197(<.001)
4	Happy-Sad	3.61(1.46)	4.77(1.38)	-10.697(<.001)
5	Trustworthy-Untrustworthy	3.25(1.28)	4.29(1.26)	-11.173(<.001)
6	Selfish-Generous*	3.47(1.53)	4.41(1.45)	-8.435(<.001)
7	Inactive-Active*	3.63(1.52)	5.00(1.39)	-11.606(<.001)
8	Neat-Untidy	3.44(1.40)	4.68(1.25)	-12.697(<.001)
9	Friendly-Unfriendly	3.02(1.25)	4.04(1.28)	-10.833(<.001)
10	Boring-Interesting*	3.80(1.26)	4.63(1.15)	-9.156(<.001)
11	Productive-Unproductive	4.07(1.51)	5.05(1.39)	-9.317(<.001)
12	Sick-Healthy*	3.78(1.72)	5.27(1.47)	-11.530(<.001)
13	Good-Bad	3.12(1.24)	4.19(1.20)	-11.068(<.001)
14	Flexible-Inflexible	3.76(1.45)	4.74(1.29)	-9.618(<.001)
15	Dependent-Independent*	4.00(1.51)	5.27(1.34)	-11.330(<.001)
16	Liberal-Conservative	4.52(1.48)	5.09(1.35)	-6.353(<.001)
17	Attractive-Unattractive	4.04(1.35)	4.70(1.24)	-6.513(<.001)
18	Intolerant-Tolerant*	3.63(1.25)	4.40(1.35)	-7.716(<.001)
19	Optimistic-Pessimistic	3.59(1.83)	4.77(1.34)	-11.205(<.001)
20	Uncomplaining-Complaining	3.94(1.39)	5.05(1.43)	-11.026(<.001)
Total Mean		72.70(18.60)	93.16(17.99)	-15.678(<.001)
Grade Point Average		3.64(.93)	4.66(.90)	

* reverse coding

<Table 5> Comparison the difference of score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urses

No.	Item	Difference(attitude toward elderly-attitude toward elderly patients)		t(p)
		Nursing students (N=423)	Nurses (N=244)	
1	Wise-Foolish	-1.283(1.43)	-1.213(1.30)	-.646(.518)
2	Kind-Unkind	-.930(1.39)	-.8556(1.54)	-.640(.522)
3	Ignorant-Knowledgeable*	-.578(1.46)	-.622(1.30)	.402(.683)
4	Happy-Sad	-1.156(1.69)	-1.622(1.67)	3.457(.001)
5	Trustworthy-Untrustworthy	-1.037(1.45)	-.910(1.40)	-1.112(.266)
6	Selfish-Generous*	-.939(1.74)	-.849(1.61)	-.675(.500)
7	Inactive-Active*	-1.369(1.84)	-1.863(1.95)	3.217(.001)
8	Neat-Untidy	-1.234(1.52)	-1.475(1.55)	1.953(.051)
9	Friendly-Unfriendly	-1.016(1.47)	-1.010(1.56)	-.057(.955)
10	Boring-Interesting*	-.828(1.41)	-.593(1.44)	-2.039(.042)
11	Productive-Unproductive	-.975(1.64)	-1.433(1.54)	3.615(<.001)
12	Sick-Healthy*	-1.504(2.04)	-2.116(1.96)	3.835(<.001)
13	Good-Bad	-1.070(1.51)	-1.166(1.42)	.820(.412)
14	Flexible-Inflexible	-.975(1.58)	-.643(1.51)	-2.688(.007)
15	Dependent-Independent*	-1.295(1.79)	-1.768(1.74)	3.348(.001)
16	Liberal-Conservative	-.566(1.39)	-.213(1.33)	-3.239(.001)
17	Attractive-Unattractive	-.656(1.57)	-.731(1.29)	.630(.529)
18	Intolerant-Tolerant*	-.771(1.56)	-.111(.167)	-5.032(<.001)
19	Optimistic-Pessimistic	-1.176(1.64)	-1.388(1.58)	1.641(.101)
20	Uncomplaining-Complaining	-1.107(1.57)	-1.069(1.56)	-.303(.762)
Total Mean		-20.463(20.39)	-21.648(16.96)	.767(.443)
Grade Point Average		-1.023(1.019)	-1.082(.85)	

* reverse coding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 환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인과 동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지만 이러한 현실의 이면은 노인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보다는 전문인력의 간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 내에서 노인이나 노인환자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학생이 71.50점, 간호사가 72.70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학생이 93.15점, 간호사는 93.16점으로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두 군 모두 노인보다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문항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경우 '편협한-수용적인' 1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에서, 간호사의 경우 20문항 모두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 모두 70점대 초반으로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태도를 파악한 선행연구 결과인 간호대학생의 82.4점[8] 그리고 81.67점[9]이나 간호사의 87.62점[12]보다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수준이 선행연구보다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이제까지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때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명확한 구분 없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질문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형성된 모든 노인에 대한 태도가 혼합되어 측정결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정은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지만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노인관련 연구 중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노인집단을 어떻게 구분하여 정의할지와 그 노인집단의 태도가 노인간호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태도는 성향성(predisposition)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 이미 존재할 수 있다 [1]. 즉 대상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전에 그 대상에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편파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간호하게 될 노인환자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적인 간호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곡된 태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래 노인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전에 노인환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이해를 갖추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향후 현장에서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태도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는 여러 편 진행되었으나[2][16][17] 노인환자와 대상자 특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 노인간호학 수강 유무,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 과거 노인과의 동거 유무에 따라 간호사

는 자원봉사 경험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는 4학년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노인환자에 대해 1학년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노인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노인간호학 강의나 실습은 비교적 고학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노인이나 대상자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은 고학년에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Kim 등(2002)[1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고학년에 노인관련 지식 수준이 높았으나 학년에 따른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Kim (2008)[18]의 연구결과 교육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단순한 지식상승만으로는 노인환자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인 대상자 특성과 마찬가지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환자와 관련된 경험을 쌓고, 경험의 질이 긍정적인 수준이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태도는 연령, 종교, 평소 친분 있는 노인 유무와 친밀도 및 교류빈도 그리고 노인과 보내는 시간[2]이나 간호사의 근무부서, 노인간호 지식 습득경로 [7]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미 노인관련 지식정도나 연령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간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두 군간 전체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항별로 간호사는 간호대학생과 비교하여 노인보다 노인환자가 더욱 슬프고, 비활

동적이며, 비생산적이고, 아프며 의존적이라는 태도를,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와 비교하여 노인환자가 더욱 지루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보수적이고 편협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간호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와 주로 간접 지식을 쌓은 간호대학생은 일부 문항에서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실제 질병으로 인해 침상에 의존하고 신체적으로 비활동적인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비활동적이며, 비생산적이고, 아프며 의존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클 것이며 간호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대상자 변인이 밝혀진 만큼 간호대학생에게 노인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태도를 개선시키는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태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실제적인 노인환자 간호경험 때문인지, 대상자의 다른 특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우선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침은 이미 밝혀졌으나[3],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노인 간호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였음을 고려할 때 태도 이외에 직업의식 등이 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제공자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간호실천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상에 대한 행동을 유도하는 태도의 기능이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태도는 학습된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경험의 결과로 형성된다[1]. 여러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노인과 경험의 부족하였는데, 실제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노인을 경험하고 태도를 형성하는지, 또한 젊은세대에게 친숙한 인터넷이나 매스

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간호대학생들이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태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 잘못된 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돕고, 실제적으로 노인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3], 긍정적인 태도는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이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19]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 노인관련 지식수준은 교육 후에 상승되어 교육의 중요성[20][21] 부정할 수 없으므로 노인간호 제공자의 전문지식을 상승시키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식수준 향상만으로는 의미 있는 태도개선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유사체험[9][22][23][24]과 같은 체험학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불편감을 경험하고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방안을 병행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 노인이나 노인환자에 대하여 간호제공자가 지각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노인유사체험의 체험콘텐츠를 간호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환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차별화하여 적용한다면 노인환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노인보다 노인환자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태도관련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간호교육에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노인이나 노인환자와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특히 노인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의 깊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간호학과 학생 423명과 간호사 244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노인보다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었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학년과 자원봉사경험의 질에 따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학년, 노인간호학 수강 유무,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 과거 노인과의 동거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임상경력, 노인에 대한 관심정도, 과거 노인과의 동거경험의 질에 따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자원봉사 경험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인과의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지각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도 측정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차이 정도가 일부 문항에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직 노인간호 현장에 입문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노인환자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하여야 하겠다.

REFERENCES

1. E. Phil(2001), Attitudes and Persuasion, Psychology Press (UK), pp.1-11.
2. M.H. Kim(2011),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4);113-126.
3. S.H. Yoon(2009), The relations of nurses' job stress and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ehavior for elderly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4);593-600.
4. G.F. Sanders, Jr. J.E. Montgomery, J.F. Pittman, C. Balkwell(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1);59-70.
5. J.R. Han(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0(3);115-127.
6. J.H. Kim(2000), Comparison of image toward elders and demented elde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2);133-143.
7. K.B. Kim, J.B. Lim, S-H.R. Sok(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3(1);13-21.
8. H.S. Jeong(2012),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4B);2025-2037.
9. H.S. Jeong, S.Y. Han(2012), The effects of an elderly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3B);1453-1466.
10. E.J. Lee, I.W. Kang(2006),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0(2);183-194.
11. H.S. Jeong(2011), Nurses' attitude toward elders and their need of education on geriatric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6B);3021-3035.
12. H.U. Park, B.H. Cho(2010),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for old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17(1);36-44.
13. S.Y. Park, Y.S. Park(2007), Geriatric hospit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and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1);59-65.
14. H.S. Jeong(2013),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s and elderly pati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Vol.1(2);85-92.
1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G. Lang(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4);1149-1160.
16. Y.S. Lim, J.S. Kim, K.S. Kim(2002),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2(1);31-46.
17. S.Y. Kim, K.M. Yang, H.E. Oh, J.S. Kim(2002),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3);21-36.
18. J.H. Kim(2008), Short-ter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course on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0(2);173-181.

접수일자 2013년 6월 4일

심사일자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7월 22일

19. J.H. Noh, E.J. Lim, J. Hur(2012), The factors influencing careworker's care performance for elders with dementi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3);75-84.
20. J.M. Lee, S.Y. Lee(2005), The impact of education of gerontolog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29(Autumn);259-283.
21. C.G. Ferrario, F.J. Freeman, G. Nellet, J. Scheel(2008), Chang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about aging: an argument for the successful aging paradigm, Educational Gerontology, Vol.34(1);51-66.
22. A.S. Eymard, B.D. Crawford, T.M. Teller(2010), Take a walk in my shoes: Nursing students take a walk in older adults' shoes to increase knowledge and empathy, Geriatric Nursing, Vol.31(2);137-141.
23. H.S. Oh, H.S. Jeong(2012),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4);1654-1664.
24. P. Varkey, D.S. Chutka, T.G. Lesnick(2006), The aging game: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7(4);224-229.